

팀 프로젝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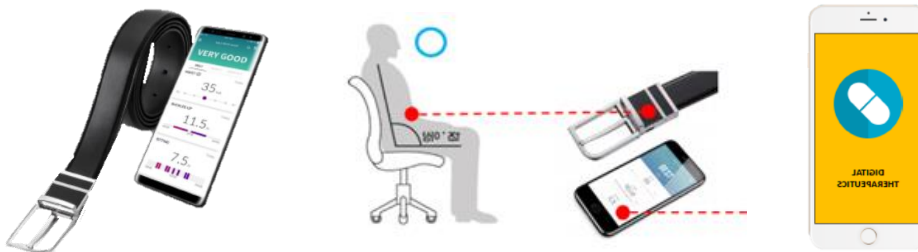
프로젝트 아이디어 도출

웰트 정화영 멘토님

웅글 곽민정 권지은 박민기 윤태성 최지원

1. 프로젝트 주제 개요

스마트벨트를 이용하고 웰트의 '앉은 자세 구분 기술'을 활용하여 자세 교정 서비스를 기획하고 상용화 가능한 버전의 앱을 개발한다.



2. NABC기반 프로젝트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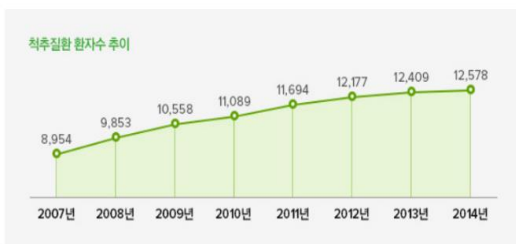
<Need>

1) 고객의 Needs 또는 불편은 무엇인가?

- 2015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척추 질환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4명 중 1명은 척추질환 진료를 받았다. 또한 척추 질환 관련하여 지출된 진료비 또한 7년 새 두 배 증가하였다.

- 2017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은 평균 8.2시간이며, 2016년 한 달간 연세바른병원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척추질환자의 평소 자세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 4명 중 1명, 척추질환으로 진료받아



척추질환자의 평소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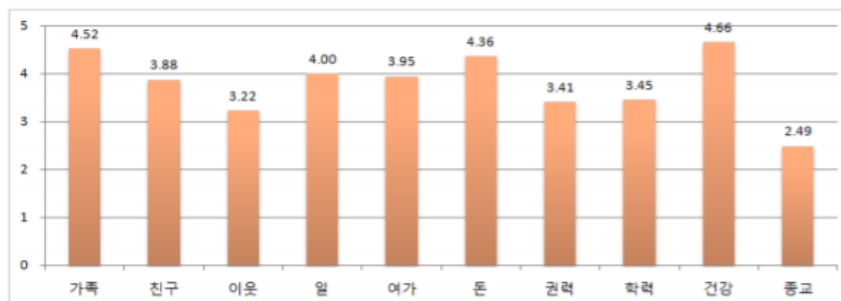
2) 최종 고객은 누구인가?

스마트벨트 벨트의 구매현황을 보았을 때, 구매는 여성 비율이 더 높지만 이는 선물용으로 구매하기 때문이고, 실제 사용 고객층은 벨트 사용이 잦고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성인 남성 직장인이다.

3) 고객들에게 불편 해소 또는 Needs 충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201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 중 하나는 건강이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 인생의 중요 사항에 대한 평균 값



4) 투자하기에 충분히 큰 시장인가?

현재 건강기능식품 관련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등 건강과 관련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Approach>

1) 고객의 Needs에 대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의 Needs를 통해, 점점 척추 질환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진료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자세를 교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척추 질환자는 의자에 앉아있으므로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 교정을 통해**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는 제품/서비스는 무엇인가?

앉은 자세를 교정 시켜주는 방법에는 2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자세를 유도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앉은 자세 피드백이다.

(1) 물리적 압박을 통한 자세 유도



a. 자세 교정 의자

b. 자세 교정 밴드

c. 자세 교정 쿠션

'자세 교정'과 같은 키워드들을 통해 조사해보면 위와 같은 물리적인 접근 방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접근 방법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점은 휴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지 않고 특정 공간(집, 회사 등)에서만 이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세 교정은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해야 하기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사용자는 얼마든지 안 좋은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자세를 고정시키는 의료용 철제 기구나 깁스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을 착용하고도 허리를 구부리거나 하는 자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하루에 얼마나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는지에 대해 피드백 받을 수 없다.

(2) 웨어러블을 통한 앉은 자세 피드백



a. UPRIGHT



b. Bodit

웨어러블을 사용할 경우 1 번의 물리적인 제품에 대한 단점을 해결 할 수 있다. 휴대하기 편하고 사용자가 직접 자세 교정을 피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의 정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제품들은 일상 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까먹거나 물건을 분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물리적인 접근방식의 단점과 웨어러블을 통한 접근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우리는 벨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웰트(welt)를 통해 자세교정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벨트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존 웰트 또한 헬스케어를 주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세 교정이 기존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웨어러블 방식인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자세를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Needs 인 자세교정을 하겠다.

<Benefit>

1) Approach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Benefit은 무엇인가?

일상 속에서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앉은 자세를 교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고객이 얻는 Benefit으로 고객의 행동 변화는 무엇인가?

- 척추 질환에서 오는 통증과 생활 속 불편함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앉아 있는 바른 자세는 열량 소모, 두통 완화, 스트레스 감소 등 척추 질환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방면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Competition>

1) 현재까지 존재하는 경쟁자는 누구인가?

프랑스의 스마트벨트 회사 Belty(벨티)가 존재한다. 벨티는 CES 2015를 통해 제품을 처음 선보였으며, 선보인 시점은 웰트보다 다소 앞서고 있다.



2) 경쟁자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가?

벨티는 스마트벨트의 기능적인 면과 함께 벨트의 주요 소재인 가죽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Zero Edge' 라는 고급 가죽 커팅 기술을 가진 업체로부터 도입된 순수 프랑스 산이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워 패션 제품으로서의 강점도 잊지 않고 있다.

장점 : 벨티는 자동으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앉으면 풀어주고 일어서면 조여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학습 기능을 갖추어 배부를 때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 등 상황 별로 벨트를 조절한다. 이러한 조절은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단점 : 벨티는 1회 충전 시 최대 5일 동안 사용가능하다. 디자인을 보았을 때, 일반 벨트와는 차이가 있어 눈에 띄고, 내부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 기존의 벨트 형태보다 다소 큰 형태이다.

3) 경쟁자의 장단점과 비교하여 무엇이 더 나은가?

웰트는 벨티와 비교했을 때 1회 충전 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 시간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 벨티는 약 5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 것에 비하여 웰트는 약 50일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벨티는 디자인 측면에서 뛰어나지 않지만, 웰트의 경우 스마트벨트라 이야기 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제품성을 지니고 있다.

4) 판매 시 경쟁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나온 헬스케어 웨어러블의 딜레마 중 하나는 **지속 사용성**이다. 핏빗, 미밴드 등의 활동량 측정계만 보아도 그렇다. 얼마 사용하지 않아 서랍에 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매체에서 두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용자가 기존의 행동을 바꿀 필요가 없어야 한다. 둘째, 사용자의 기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보았을 때 웰트는 이를 모두 충족시킨다. 회사에서 장시간 앉아 근무하는 회사원분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벨트를 웰트로만 교체하면 되므로 첫번째를 충족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므로 두번째 조건 또한 충족한다.

++ 팀 미팅 사진

